

大韓帝國 官報에 나타나는 日本式 漢字語에 대하여

김지연*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官報에 나타나는 日本式 漢字語 |
| 2. 大韓帝國 官報에 대하여 | 3.1 조사 방법 |
| 2.1 관보의 자료성 | 3.2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대하여 |
| 2.2 관보의 변천 | 3.3 조사결과 |
| 2.3 관보의 구성 | 4.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
| | 5. 마치며 |

1. 들어가며

본고는 대한제국 관보에 나타나는 일본식 한자어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19세기 말 이후 한국어 어휘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일본식 한자의 유입 시기와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부이다.

대한제국의 관보는 1894년 갑오경장부터 발간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정부의 각종 제도와 통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상 새로운 어휘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보의 작성자들 가운데는 일본 유학생 출신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 근대 일본어가 유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보에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아래 관보의 용어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1894년(고종 31년 개국 503년) 6월 21일부터 1896년 6월까지의 2년간의 기사를 조사하였다. 대한제국 관보는 원래 1894년 6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발행되었는데 금번 조사한 것은 서울대중앙도서관본의 영인본이다. 본고는 금후의 연구를 하기위한 기초 작업으로, 관보에 어느 정도 日本式 漢字語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연구

* 고려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 大韓帝國 官報에 대하여

2.1 官報의 자료성

대한제국 관보는 1894년 6월21일부터 1910년 8월29일까지의 대한제국 정부의 법령류와 정치, 행정, 인사, 군사, 외교, 「學事」, 사법, 경찰, 산업, 재정, 교통, 위생, 기사, 「外報」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당시의 제반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관보는 새로운 제도와 개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한자어의 사용이 많았으며 그만큼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大韓帝國 官報는 당시의 어휘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2 官報의 변천

본래 朝鮮王朝에서는 그 초기부터 朝報를 발행하여 承政院에서 처결한 詔勅章 奏廟堂의 결의 사항, 敍任, 辭命, 지방관의 狀啓등을 보도하여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1894년 6월 25일 갑오경장의 추진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지 수 일 후에 창간 된 것으로 짐작되는 구한국 정부의 官報는 그 연원을 朝報에서 구할 수 있다 하겠다. 구한국 정부의 官報가 朝報의 체제로부터 근대적 관보 체제로 개편된 것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이다. 이때부터 号數(제1호)와 요일을 표시하고 각 기사를 칙령, 각령, 서임, 宮庭錄事, 彙報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보다 좀 앞서 개국 503년 12월 11일자부터는 국한문을 혼용하기 시작하였고 개국 504년 6월 1일자 제77호부터는 신식 鉛活字로 인쇄하였다. 한편 紀年에 있어서는 1894년 6월 21일자는 干支(甲午)를 동년 6월 29일자부터 1895년 11월 15일자 제213호까지는 開國紀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896년 1월 4일자 제214호부터는 양력으로 표기하는 동시에 建陽, 光武隆熙등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官報를 발행한 곳은 한국정부의 관보국과 관보과였다.

즉 창간호로 짐작되는 甲午 6월 21일자부터 개국 504년 3월 29일자까지는 議政府官報局에서, 개국 504년 4월 1일자(제1호)부터 隆熙4년 8월 29일자 제1,768호까지는 관보과에서 발행되었다. 그런데 관보과는 정부직제의 개편에 따라 內閣記錄局, 議政府總務局, 參書官室 법제국등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내각법제국에 소속되었다. 官報에 그 발행처를 내각기록국관보과 혹은 의정부관보과 내각법제국관보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구한

국정부직제의 개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관보과에서는 매일 오후 1시 까지 각 관청에서 보내온 기사를 마감 정리하여 다음날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공휴일에는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기사는 마감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号外를 발행하여 게재하였으며 기사가 폭주하여 일시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緩急을 가리어 게재하기도 하고 장편기사는 부록을 발행하거나 數号에 나누어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 뒤 舊韓國 政府職制의 개정에 따라 隆熙2년 3월30일부터 警視廳令 漢城府令을, 동년 12월 26일부터는 道令을 게재하게 되었다. 光武10년 9월12일부터는 統監府令類가 게재되었으며 隆熙 2년 8월 21일부터 통감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3 官報의 구성

大韓帝國 官報는 16년 20개월에 걸쳐 기록된 약 19,6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것으로 号數없이 발행된 1894년 6월 21일자부터 1895년(고종32년 개국504년) 3월29일자에 이르기까지가 1,100여면, 号數를 붙여 발행한 1895년 4월 1일자 제 1호부터 1910년 8월 29일자 제4,768호 까지 총 18,400여 면에 달한다. 記事의 분량은 1회분이 대개 2-4面 정도이다.

각 호의 내부 구성은 처음에는 政事, 草記¹⁾, 議案²⁾(1894년 6월21일부터 1895년 3월 29일자까지)의 구성을 보이다가 근대적 관보체제로 개편된 후에는 号數(제1호)와 曜日을 표시하고 각 記事를 勅令, 閣令, 敍任, 宮庭綠事, 彙報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다. 그 외에 광고, 배편의 시각표, 관보 정가표 등도 게재되어 있다.

관보의 문장은 처음에는 순 한문체였으나 1895년경부터는 純漢文体와 한글 번역체 國漢文混用体로 발행하다가 1895년 6월경부터는 완전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純漢文体의 문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3. 官報에 나타나는 日本式 漢字語

3.1 조사 방법

본 고에서는 『明治のことは辭典』에 사용된 표제어를 明治時代 일본에서 사용된 단어로

1) 草記:서울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임금님께 올리던 상주문의 한 가지

2) 議案:회의에 넘긴 안건

보고, 관보에 이들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나오는 표제어가 들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관보의 해당 조사 부분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 ② 『明治のことは辭典』의 표제어 중 한자어를 추출하였다.(1,431 단어)
- ③ 관보에 위의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나타나는 한자어가 들어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검색은 아래아 한글 관보 파일에서 찾기 기능을 사용하였다.

官報의 입력 부분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官 報 甲午六月二十一日

伝曰安置罪人李容元島配罪人權鳳熙安孝濟呂圭亨並放 伝曰放逐郷里罪人金允植蕩滌敘用 藥房口伝 啓曰夜來 中宮殿 腫侯益臻康復乎下情憧憧不任伏慮當進之湯劑及敷貼之方不容不趨早議定亟許臣率医官人 許千万顯祝惶恐敢 啓 答曰知道今既平復卿等不必入侍矣更易煩 啓 伝曰輕囚放釋左右捕廳在囚賊徒外並放

二十二日

義禁府安置罪人李容元島配罪人權鳳熙安孝濟呂圭亨並放事 命下矣全羅道羅州牧黑山島圉籬安置加棘罪人李容元靈光郡荏子島島配罪人權鳳熙羅州牧智島島配罪人安孝濟等方在台 啓中並不得舉行珍島府金甲島島配罪人呂圭亨放送事 分付該道道臣事 伝曰卽速舉行 伝曰兵曹判書許遞全羅監司金鶴鎮 除授全羅監司之代長与府使朴齊純 除授 內務府前主事朴準陽本府主事差下 伝曰內務主事朴準陽同副承旨 除授 伝曰三王不同礼五帝不同樂礼樂因時制宜況政治乎顧我邦介在東亞樞要之地委靡不振由我政治之頹墮紊亂不思變通耳夫謀國之道用人爲先其四色偏党之論一切打破不拘門地惟賢惟才是舉凡係內治外務務從時宜大小臣工各修奮力之義克相予寡昧以新政治亟圖保國安民之策也可 伝曰左捕將許遞大護軍李元會 除授 伝曰前直長鄭雲鵬別軍職差下 伝曰有實故玉堂許遞李源兢落点 伝曰凡今庶務遇有緊重事件先爲明于大院君前 伝曰今問都都下民日

草 記 開國五百三年七月十五日

軍國機務處 啓曰諸議員臣本日議案各條謹具清單
恭呈 乙覽冀蒙 允施之意敢 啓

議 案

一罪人閔泳駿盜弄權柄罔 上虐民妖女金昌烈母假托神靈操縱威福誅戮未加輿情如沸乃於月前有刑曹叅議池錫永之疏而尙未承 允俞之處分誠不勝抑?之至此非池錫永一人之言卽舉國公共之論也

宜拿來嚴? 明正其罪以罪人閔炯植言之貪饕成習
狂? 無論管轄三道毒流百姓此而容貸其何以謝南

四故意로써不實호申告를行호는者

五職權을濫用호야人民의權利를侵害호는者

六下隸를指嗾호야人民의財産을掠奪호는者

七職務上의機密을漏洩호는者

八職權을借用호야私利를營호는者

九怠慢호야職掌을曠廢호는者

十放蕩遊嬉를耽호는者

十一職務를行호기에恥辱이되는者

第五條降級罰金譴責은其犯狀의輕重을斟量호야適

勅令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使之頒布從前公文
頒布例規自本日廢止承宣院公事廳並罷之

開國五百三年十一月二十一日

大君主 御押 御璽奉 勅總理大臣金弘集
內務大臣

彙 報

○官廳事項

受勅及受牒

到任

淑陵參奉 朱秉濬 十月二十日 大邱郵遞 十月

宮內府特進官 趙民熙 十月廿六日 司主事 白南直 十七
日

○學事

慶尙北道觀察府公立小學校副教員李周浩호解任호고李斗錫

호로黃海道觀察府公立小學校副教員具鳳書호解任호고金希

善호로北青郡公立小學校副教員金惠經호解任호

號外

光武四年七月三日

宮 廷 錄 事

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署理 宮內府

協辦臣尹定求謹

奏明日

出宮來問路以何門爲之乎敢

詔曰命宮內府特進官徐正淳爲弘文館學士

六月二十九日

弘文館學士金鶴鎮辭職疏

批旨省疏具悉所請依施

六月二十九日

部 令

學部令第十一號

外國語學校規則

叙 任

命弘文館學士叙勅任官三等 宮內府特進官 徐正淳
李錫滢 辛孝鎮 金時鍊 張寅和

任通信司電話課主事叙判任官八等

以上六月二十九日

正 誤

光武四年六月二十七日號外官報

永禧殿營建都監別單中寫字官鄭台永陞六添入付票 ㅎ미라

官報定價票

一部 二錢 一個月條

六個月條 三元 一個年條

勅 令

勅令第二十二號

平安北道와咸鏡南北道에 鎭衛大隊設寔件

第一條 平安北道와咸鏡南北道에 鎭衛大隊를設寔 ㅎ아地方

鎭平의邊境守備를 專任케 ㅎ事

第二條 鎭衛大隊位寔는四處에分 ㅎ고隊號는地方를 從 ㅎ아

某某眞僞大隊라稱 ㅎ事

第三條 各鎭衛大隊는五中隊로 ㅎ事

叙 任 及 辭 令

陞從二品

光武三年十月三日 正尉 李昌煥

陞從二品 通信院庶務局長 姜寅圭

3.2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대하여

明治時代는 정치, 경제, 사회, 풍속을 시작으로 모든 면에서 격동의 시대였다. 일본어의 어휘의 면에도 예외는 없이 西歐諸國에서 받아들인 제도, 사물 및 사상이 문명개화의 외침 아래서 譯語 또는 외래어의 형태로 이입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신어, 각광받던 시대어의 의미, 용법, 낱양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明治のことは辭典』은 明治時代に 새롭게 탄생한 말, 明治時代에 와서 새롭게 탄생한 말, 明治時代に 두 개 이상의 漢字表記와 語形 읽는 법)이 있는 말, 明治時代の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하는 4가지 관점에서 선택된 말이다 『明治のことは辭典』에 수록된 표제어 1,341語는 新時代를 반영하는 明治文化語라고 할 수 있다. 語義의 收集에 있어서는 明治時代 전후에도 배려하여 江戸末期부터 大正時代に 걸쳐서 國語辭典·述語辭典·庶民을 위한 소형字典등 360여종을 대상으로 한다.

『明治のことは辭典』(東京塘出版 1986)은 惣郷正明와 飛田良文씨가 편찬한 것으로 明治時代に 발행된 각종 사전과 자료, 일본 근대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명치시대에 사용된 단어들의 종합적 자료이다.

사전의 해설은 그 말이 明治時代に 있어서 어떻게 사용 되어져 어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意味, 表記, 語形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그 특색을 나타내는 용례를 되도록 당시의 법령, 신문기사, 소설, 희곡, 평론 등 광범위한 문헌에서 택하여 구체적인 기술을 하였다. 또 語義, 解説에 사용한 사전 용례에는 그 문헌의 刊行年度 또는 發行年度를 기술하여 그 말의 역사를 알 수 있다. 『明治のことは辭典』은 明治時代の 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속에서 抽象概念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3.3 조사결과

조사결과 1894년6월21일부터 1896년까지 2년간의 관보에는 39개의 일본식한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두 들면 다음과 같다.

- 意志 (1) 決 意 した こと 該 國 政府 其 要 償 不 應 意 志 有 否 因 此 (445 号)
- 印刷 (24) 五 圖 書 的 印 刷 關 係 事 項 (19 号)
- 影響 (1) 不 少 影 響 金 融 及 其 他 諸 事 (268 号)
- 衛生 (124) 衛 生 局 掌 傳 染 病 豫 防 事 務 兼 理 醫 藥 牛 痘 等 事 參 議
- 演說 (6) 英 國 內 閣 總 理 大 臣 [솔스베리] 侯 子 [브라이돈] (地方)에서 演 說 中 也 (197 号)
- 開化 (4) 朕 赤 子 懷 恩 而 畏 法 安 生 而 樂 業 咸 知 更 張 開 化 之 宜 出 於 爲 民 也 (開 國 五 百 四 年 閏 五 月 二 十 日 號 外)
- 會社 (1059) 一 農 商 衙 門 管 理 農 業 商 務 藝 術 漁 獵 種 牧 礦 山 地 質 及 營 業 會 社 等 一 切 事 務

- 學年 (14) 第八條 學年은七月二十一日로始호야翌年六月十五日에從호 (121 号)
- 間接 (1) (官報 第三百卅七號 建陽元年五月廿八日 木曜)
千百二十万千八百十三法間稅及間接收入二十億千六百八)
- 感染 (3) 病에感染호거호는或因此死亡호者에게支給호는恤金 (開國五百四年閏五月十三日號外)
- 議員 (39) 處草記今日是會議之期而議員過半不進以致停議揆 (開國五百三年八月初八日)
- 義塾 (1) 慶應義塾入學生은一百五十人호로目的호는前年度에設塾호로 (226 付錄)
- 義務 (23) 租稅及其他歲入을納上호는可義務를終호는者호호 (4号)
- 共和 (12) 撰擧호야然後獨立을發表호야규마共和國를 (138 号)
- 經濟 (3) 一山林局掌山林經濟私有山林統計及山林學校等事
- 警察 (194) 一法務衙門管理司法行政警察赦宥兼督高等法院以
- 藝術 (2) 一農商衙門管理農業商務藝術漁獵種牧礦山地質及
- 憲兵 (1) 工兵五聯隊八千三百人이호憲兵이二万五千人이호 (333 号)
- 權利 (25) 自由國을除호는外호는參與호權利를有호호므로凡一百
- 公園 (1) 河岸 道路橋梁 鐵道 電線 公園 車馬 建築 田野
- 工學 (1) 天文地理理學工學數理等에精通호는者를 (82 号)
- 工業 (10) 工業及工場에關호는事項 (20 号)
- 社會 (96) 秩序를維持호고社會의增進호라曰體養은動作에 (開國五百四年二月初二日)
- 寫眞 (3) 一寫眞과其他禮拜의用에供호物 (115 号)
- 自由 (党、15) 保守黨과聯合自由黨호로써
- 授業 (5) 內外教育史及著名호教育家의傳記로부터實地授業의方法을練習호 (121 号)
- 主權 (2) 규마嶋의財政을監督호야兼同嶋에對호西國主權을保持호 (366 号)
- 出版 (4) 圖書出版에關호는事項 (16 号)
- 情報 (1) 臺灣情報 (81 号)
- 數學 (5) 國文漢文歷史地理數學物理化學博物習字作文體操호호 (121 号)
- 選舉 (15) 義太國代議院長의選舉라(草記 開國五百三年七月初三日)
- 鐵道 (73) 椿等事參議一員鐵道局長兼之主事一員
- 統計 (52) 三 統計報告의調査에關호는事項
- 獨立 (53) 一割斷附依清國慮念確建自主獨立基礎
- 美術 (1) 古物遺蹟과美術家建築家好古家를 (142 号)
- 物理 (4) 地理數學物理化學博物習字作文體操호호 (121 号)
- 郵便 (21) 外國重要事項諸官廳廣告郵便船出發 (73 号)
- 令狀 (1) 輔助호케호고又令狀을執行호게호고 (15 号)
曜日 (月曜日、火曜日、水曜日、木曜日、金曜日、日曜日)

4.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위의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나오는 二語漢字語중에서 적지 않은 단어가 관보에 나타나고 있다. 단, 『明治のことは辭典』에 나오는 한자가 모두 일본 기원의 漢字語라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일부분이나마 대한제국 관보에는 日本式漢字語가 사용되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甲午更張이후 개혁에 참가한 사람들과 관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 유학으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그 영향으로 일본식 개화를 하려고 한 것과 관계가 적지 않다고 생각 되어진다.

5. 마치며

이상 大韓帝國 官報에 나타나는 日本式 漢字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관보에는 日本式漢字語가 39개 출현하여 관보가 하나의 유입경로서 초기부터 日本近代漢字語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근대 일본어의 유입 문제를 연구하는 본인의 기초적인 연구의 하나로 관보를 자료로 하여 조사한 것이나 아직 문제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금번 조사는 관보 전체의 수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어서 관보 전체가 어떠한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둘째로는 근대 일본 한자어의 판별 문제이다. 각각의 한자어에 대하여 처음 사용한 나라를 밝히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다. 셋째로는 방대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조사 분석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금후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관보에 사용된 근대 일본 한자어의 문제를 규명해 가고자 한다.

【參考文獻】

- 佐藤亨(1992) 「近代語の成立」櫻楓社 pp.25-46
- 惣郷正明외(1986) 『明治のことは辭典』東京堂出版 pp.10-100
- 山本正秀(1979) 「近代文体形成資料集成」櫻楓社 pp.32-71
- 飛田良文외(1984) 『大正明治新語俗語辭典』東京堂出版 pp.25-27
- 佐藤喜代治編(1982) 「近代の語彙」明治書院 pp.10-52

- ・ 小林陽一(2001) 「日本語の近代」岩波書店 pp.7-9
- ・ 杉本つとむ編((2001) 「日本洋學小誌」酷星社 pp.12-36
- ・ 森岡健二외(1082) 講座 「日本語學4 」語彙史 pp.15-26
- ・ 森岡健二編(1969) 「近代語の成立」明治期語彙編 明治書院 pp.33-46
- ・ 飛田良文(2002) 「明治生まれの日本語」淡交社 pp.20-24
- ・ 任正嫻(2001) 「朝鮮科學技術史研究」酷星社 pp.29-30
- ・ 한국사사전편찬회편(1990) 『한국근현대사사전』가람기획 pp.39-55
- ・ 歴史學研究會編(1997) 「日本史史料」近代 岩波書店 pp.25-49
- ・ 齋藤毅(1977) 「明治のことば」講談社 pp.7-32
- ・ 鈴木修次(1981) 「日本漢語と中國」中央公論社刊 pp.11-28

K C I

要 旨

本稿は大韓帝國の官報に現れる日本式漢字語について考察したのである。19世紀末以後、韓國語の語彙には日本式漢字語が入っている。本研究はこれらの日本式漢字語の流入時期と経路を明らかにする研究の一部である。本稿では『明治のことは辭典』にある表題語を明治時代に日本で使われた單語としてみて、官報にこれらの『明治のことは辭典』にある表題語の有無を調べた。調査の結果、官報には発行の初期から日本式近代漢字語が使用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本稿は近代日本語の流入の問題を研究する本人の基礎的な研究の一つとして、官報を資料として調査したものであるが、まだ、問題が少なくない。たとえば、今回の調査は官報全体からみれば、ほんの一部に該当する兩なので、官報全体がどうかはまだ分かりにくい。もう一つは近代日本漢字語の判別の問題である。各々の漢字語に對して、使い始めた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難しい。また、多いデータの効果的な調査分析法の開発である。今後、この問題を解決する努力を續けて官報に使われた近代日本漢字語の問題を考えて行き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近代語、日本式漢字語、大韓帝國官報、純漢文体、ハングル翻譯体、
國漢文混用体、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135-895)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4-26
電 話 : 017-273-2086
e-mail : yeon6865@yahoo.co.kr